



보도	2023.7.4.(화) 14:00	배포	2023.7.4.(호남)		
담당부서	감찰실	책임자	국 장	이주현	(02-3145-5500)
	감찰총괄팀	담당자	팀 장	김세환	(02-3145-5503)

## 금감원,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 개최

### I.개 요

- □ 금융감독원은 '23.7.4일(화) 14시,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원장, 감사, 부원장, 부원장보, 전문심의위원, 법률자문관, 금융자문관 및 본원 소속 부서장이 참석하였음
- □ 금번 행사는 금융감독원 고위직 및 주요 보직자들의 반부패 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렴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 o <세션 1>에서는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박희정 팀장을 초빙하여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세션 2>에서는 '23년도 반부패 추진 계획 및 실행전략 등을 논의하였음

### 금융감독원「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14:00 ~ 14:10 (10')	[개회 및 모두발언]	이복현 원장			
Session I : 고위직 등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14:10 ~ 16:00 (1:50')	고위직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 1교시 : 갑질금지 등 행동강령 • 2교시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공익심사팀장 박희정			
Session 표 : 제1차 금융감독원 반부패·청렴 정책회의					
16:00 ~ 16:35 (35')	❶ '23년도 반부패추진계획 등 보고	감찰실 국장			
16:35 ~ 16:50 (15')	❷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6:50 ~ 17:00 (10')	<b>❸</b> 맺는말	이복현 원장			

## Ⅱ. 주요 발표 및 논의내용

- □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윤리기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강화 되고 있어 조직 차원의 꾸준한 함양과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 우리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신뢰 받는 금융감독기구를 향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 특히,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이권카르텔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워칙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서도 국민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반부패·청렴 워크숍」행사를 **청렴·반부패 활동**에 대한 **전사적 관심** 및 **청렴문화 확산**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하였음
- □ <세션 1>에서 권익위원회 박희정 팀장은
  - 갑질금지 조항 등 행동강령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음
- □ <세션 2>에서는 감찰실 국장이 '23년도 금융감독원 반부패 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우리원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반부패·청렴 다짐**'을 통해 **전사적** 참여와 실천의지를 재확인하였음

[붙임] 금융감독원장「반부패·청렴 워크숍」모두발언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2023. 7. 4. (화) 14:00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이 복 현

#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먼저, 우리원의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반부패·청렴 워크숍」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감사님과 감찰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반부패·청렴 워크숍」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임원 분들과 각 부서장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원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교육**을 위해 멀리서 와 주신 권익위원회 박희정 팀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Ⅱ 반부패 청렴 워크숍 개최 격려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가치는 업무의 성격과 지위를 막론하고 "능력"과 "도덕성" 그 두 가지로 압축될 것입니다.

그간 우리원 임직원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으나

도덕성에 대한 조직적 관심은 바쁜 현안 업무에 밀려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그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행**이 국민들의 기대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점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능력이 달라지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 또한 바뀐다는 점입니다.

'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되었으며,

'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법규 위반 행위 뿐 아니라

갑질행위 및 절차위반 등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더 이상 공직자의 "도덕성" 또한 각 개인의 노력에만 의지할 수 없으며

조직차원의 꾸준한 개발과 함양, 전사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가치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이권카르텔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복무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원칙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반부패·청렴 워크숍」 행사는 우리원의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Ⅲ 맺음말

논어에 **'본립도생\***(本立道生)'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기본에 충실하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공직자의 본분이 '청렴'이라는 점을 전 직원이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나갈 때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은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일「반부패·청렴 워크숍」이 우리원 임직원들이 청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